

광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당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9건 8천만원 지원금 지출 간부들 해외여행에도 사용 시민단체, 4곳 지원금 분석

광주지역 일부 4년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 간부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교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비로 지원되는 학생회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부적절한 지출사례 등 문 제점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대학 총학은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특정업체와 여행 위탁·자료집 제작 등 9건의 위탁 계약을 맺 고 총 8156만원의 지원금을 지출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10년 전인 2009년 같은 대학 총학에서 활동했던 학생회 간부 출신이 사내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전문 인쇄업체나 여행업체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념품 제작부 터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자료집 제작까지 도맡아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친분을 이유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

이라는 게 시민모임 측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해당 업체 대표가 A대학 총 학생회 역대 간부들이 소속돼 활동 중인 단체에서도 활동중"이라며 "그동안 대학 내에서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여행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B대학은 같은 기간 매년 '해외장학연 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를 사용해 사실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오사카와 교토, 고베, 유추인, 뱃부, 유후인, 태국 방콕과 파타 야, 대만 타이페이와 화련, 야우 등 대표적 인 관광지들이다. 이 대학 총학은 간부들 이 매년 1인당 25만~3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를 교비에서 편성한 총학

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지원된 교비가 최근 5년간 9300만원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다수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마련된 교비를 간부 들을 위한 여행 위주 연수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해외연수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합의와 해외연수계획 보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B대학 학생회 간부 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역시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한다"며 "무급으로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학생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마지막 잎새에 맺힌 빗방울
겨울비가 촉촉히 내린 7일 광주시 남구 구동의 한 산책로 가로수 가지에 물방울이 맺혀있 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광주·전남 1곳씩 2곳 적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된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에선 각 1곳씩 총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외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156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으로 반입한 외국 식품 등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업체는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케첩을 진열·판매했고, 영암군 삼호읍의 모 마트는 유통 기간이 지난 냉동계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신고 제품 판매업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선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오늘부터 예매 시작

설 연휴 기간(1월 23일~27일) 호남선 열차승차권 예매가 8일부터 시작된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 어플 을 통해 이날 오전 7시~오후 1시, 역과 판매대리점은 오전 8시~11시까지 가능하다. 표는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까지 살 수 있으며, 예매한 승차권은 8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 전까지 결제해야 한다. 아쉽게 열차를 예매하지 못했다면 8일 오후 3시부터 잔여석 예매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15:20
해질	17:36	달집	04:55

다시 부는 겨울바람
아침에 그친 후 찬바람 불어 출했다.

광주	비온뒤 갬	4/6	보성	비온뒤 갬	4/5
목포	비온뒤 갬	4/5	순천	비온뒤 갬	5/7
여수	비온뒤 갬	6/8	영광	비온뒤 갬	4/6
나주	비온뒤 갬	3/7	진도	비온뒤 갬	5/7
완도	비온뒤 갬	6/7	전주	비온뒤 갬	4/5
구례	비온뒤 갬	4/5	군산	비온뒤 갬	5/6
강진	비온뒤 갬	4/7	남원	비온뒤 갬	3/5
해남	비온뒤 갬	4/6	흑산도	비온뒤 갬	5/7
장성	비온뒤 갬	4/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서~북서	2.0~4.0
면바다(북)	서~북서	3.0~5.0
면바다(남)	서~북서	3.0~5.0
남해서부	서~북서	2.0~4.0
면바다(서)	서~북서	3.0~5.0
면바다(동)	서~북서	3.0~5.0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14	12:29
여수	00:57	07:37
	13:42	19:38

◇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1/6	-2/8	0/8	0/6	-1/7	-2/8	0/6

완도 19.3도...전남 곳곳 역대최고 1월 기온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전남 곳곳에서 1월 기온과 관련한 기록이 새로 쓰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완도, 영광, 장흥, 해남 낮 최고기온이 이날 각각 지점별 1월 하루 최고값을 경신했다. 지점별 낮 기온은 완도 19.3도, 장흥 19.2도, 해남 18.5도, 영광 16.8도까지 올랐다. 고흥 17도, 광주 16.4도, 흑산도 15.8도 등 곳곳에서 역대 2~3위에 해당하는 하루 최고기온을 보였다. 영광군은 가장 높았던 1월 하루 최저 기온 기록도 깨뜨렸다. 이날 최저 기온은 9.6도로 2010년 1월 20일 5.9도였던 종전 기록보다 3도 이상 높았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경찰 1부장 양성진·2부장 박성주...경무관 59명 전보

경찰청이 7일 경무관 5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양성진 광주경찰청 2부장은 광주경찰청 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광주경찰청 2부장은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내정됐다. 이번에 경무관으로 승진한 박 신임 2부장은 경찰대 57기로 고향은 보성이며 광주 광덕고를 나왔다. 광산경찰서장으로 박석일 전주완산경찰서장이 전보됐으며, 이명호 광산서장은 전남경찰청 1부장으로 이동했다. 전남경찰청 2부장에는 이번에 승진한 정병권 경찰청 자치경찰기획과장(경찰대 6기·광주·광주교)이 부임한다. 이번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동시에 3명을 배출해 화제를 모은 석산고 출신 이웅석 전남경찰청 수사과장과 오문교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장, 광순기 과학수사과장은 각각 전북경찰청 1부장, 수원남부경찰서장, 부산경찰청 2부장으로 임명됐다. 구례 출신으로 경무관에 승진한 김희중 전 강원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은 경북경찰청 1부장 자리에 배치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수사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피의자·참고인의 검찰 소환을 비공개하는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송 변호사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 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한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